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건강상태가 좋은 날, 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방문해주세요.
- 의료기관 방문은 가능한 보호자와 함께 해 주시고, 동행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 동의서\*를 미리 작성해 주세요.  
\*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관련자료 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예방접종 전 예진표 및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점검표(상담 체크리스트)를 꼼꼼히 작성해 주세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은 의료인과의 건강상담과 함께 이루어 지므로, 사춘기 성장발달과 월경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세요.
- 일부 청소년은 접종부위 통증이나 심한 긴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고 넘어질 수 있지만, 이는 다른 예방접종 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고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접종 받고, 예방접종 후 20~30분간 의료기관에 앉아 있거나 누워있으면서 경과를 관찰하세요.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이 의심되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보건소에 신고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https://nip.cdc.go.kr>)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해 주세요.

##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안내

- 정부에서는 1995년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하여 진료비 등을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신청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에 한함)이 가능하며, 보상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꼭 기억해 주세요

- 하나 2차 성징은 만 13세에는 나타나야 하며, 2차 성징이 있다면 만 15세까지 초경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경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병원을 방문하도록 합니다.
- 둘 초경 후 2년이 지났는데 월경주기가 21일 미만 혹은 45일 이상 간격이거나 7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일상생활을 방해할 정도로 출혈이 많다면 전문가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 셋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으로 자궁경부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넷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은 만 12세에 6개월 간격으로 2회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섯 예방접종을 받은 다음에는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20~30분 앉아 있거나 누워있다가 귀가합니다.

### ‘예방접종도우미’ 앱 다운 받으시고 편리하게 예방접종 관리하세요

▶ **주요기능:** 예방접종 내역 확인 및 다음 접종일정 알림서비스



28159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200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Tel. 043)719-6848~51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cdc.go.kr>

# 꼬마숙녀의 건강한 미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으로 지켜주세요!

‘자궁경부암’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감염이 주원인으로, 한 해 약 3,500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900여명이 사망하는 치명적인 암이지만, 두 번의 예방접종으로 사전 예방이 가능합니다!



**사업대상** 2005~2006년 출생한 만 12세 여성 청소년

**지원내용**

- 사춘기 여성 청소년의 1:1 맞춤 의료상담
-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 6개월 간격으로 2회 무료지원

**지원백신** 가다실(HPV4), 서바릭스(HPV2)

**사업기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의 모든 것

이제 막 성인의 시작점인 초경을 시작한 딸  
잘 자라줌에 기쁘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셨나요?  
우리 아이의 아름다운 시작을 응원해 주세요!

## Q 초경은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중의 일부입니다.

사춘기는 2차 성징이 발현되며 생식능력을 얻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사춘기 발달과정은 유방발달 → 음모와 액와모 발달 →  
급격한 키 성장 → 초경 → 배란 순서로 나타납니다.

## Q 초경은 언제 시작하나요?

초경을 시작하는 평균 나이는 만 12~13세로 유방발육이 시작된  
후 약 2~3년이 지난 후에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2차 성징(유방,  
음모 발달)이 있지만 만 15세까지 초경이 없거나, 2차 성징이 만  
13세까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차성 무월경이 의심되므로  
전문가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초경 이후 월경은 어떤가요?

초경 후 2년까지는 약 50~80%에서 월경주기가 무배란성으로  
불규칙하고, 2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규칙적인 배란주기를 갖게  
됩니다. 초경 후 2년 이내라면 기다려 주세요.

## Q 월경통이 있어요!

월경통 중 자궁, 난소, 혹은 골반 내에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월경기간 분비되는 호르몬(프로스타글란딘)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월경통을 일차성 월경통으로,  
골반장기의 이상에 의한 월경통을  
이차성 월경통으로 분류합니다.  
일차성 월경통인 경우  
소염진통제를 통증이 있는  
기간에 복용하면 70~90%에서  
호전됩니다. 월경통 관련  
진통제는 정해진 용량과 용법에  
맞게 복용해야 하며, 복용  
후에도 월경통이 호전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 여성암 발생 2위인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환자의 99%에서 발견되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 Q 사람유두종바이러스란 무엇인가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는 생식기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증상 없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만, 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전형(HPV 16, 18형 등)에 지속적으로 감염될 경우, 수년에서  
수십 년 후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Q 우리나라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감염과 자궁경부암은 얼마나 발생하나요?

2006~2011년까지 우리나라 18~79세 여성 60,77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자의 34.2%(20,787명)가 HPV에 감염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3,500여 명의 여성이 자궁경부암으로  
새롭게 진단받고 900여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 Q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으로 암을 예방할 수 있나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킬 위험성이 높은 유전형 중 HPV 16, 18형은  
자궁경부암 원인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된 두 가지 백신(가다실, 서바릭스) 모두 HPV 16, 18형의  
감염과, 이와 관련된 자궁경부 상피내암 및 자궁경부 상피내  
선암증에 90% 이상의 높은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 Q 왜 만 12세에 접종하나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의 최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성 경험을 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연령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접종을 받게 되면 그 이상의 연령에서보다 예방접종 후 면역 반응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만 14~15세 이후 1차 접종을 시작하면  
3회 접종이 필요하지만, 만 9~13세에 1차 접종을 시작하면 2회  
접종으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2세의 경우 Tdap 백신과  
같은 다른 백신도 함께 접종할 수 있어 이 연령에서 접종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의 접종을 망설이고 계신가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전세계 74개국에서 국가예방접종으로 시행되는,  
안전성이 입증된 백신입니다.

## Q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안전한가요?

네. 안전합니다.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반응은 타 영유아 백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접종부위의 통증, 뺨갛게 부음, 두드러기 같은  
국소반응과 발열, 메스꺼움, 근육통 등 전신반응이 있으며, 이런  
증상은 보통 2~3일 내 특별한 치료 없이 회복됩니다.

## Q 외국에서 심각한 백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세계보건기구(WHO)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은 암  
예방을 목적으로 2006년 허가를 받은 이후 2017년 7월까지  
전세계적으로 2억 7천건 이상 접종되었으며, 미국, 호주, 유럽,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안전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복합국소통증 5사례가 보고되었으나, 일본 후생노동성  
조사 결과 백신과의 관련성은 인정하기 힘들고, 심리 불안  
반응으로 잠정결론을 내렸습니다(2014년 2월, 7월).

또한 일본의 소아과학회,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학협회 17개  
단체에서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국가예방접종을  
재개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2016년).

\* 백신으로 인하여 보행장애, 난소부전 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는  
SNS글은 과학적인 사실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세계보건기구 및  
해당 국가(뉴질랜드, 미국 등)에서는 그 사례들이 예방 접종과  
관련이 없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 Q 우리나라에서는 부작용 사례가 없었나요?

국내에서는 2018년 1월 기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국가  
예방접종 도입 후 약 67만 건 접종 후 53건(0.008%)의 이상  
반응이 신고되었고, 이 중 심인성 반응으로 일시적인 실신 및  
실신 전 어지러움 등의 증상(31건)이 가장 많았습니다. 예방  
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현재까지 안전성이 우려되는  
증증이상반응 사례군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